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6.2(화) 14:00부터 보도가능</h2>	
---	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,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금융지주감독팀			
책 임 자	김연준 팀장 (2156-9680) 최성일 국장 (3145-8300)	담 당 자	김정주 사무관 (2156-9682) 이근우 팀장 (3145-8011)	
배 포 일	2015. 6. 2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3매

제 목 :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!

- 금융위원장,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 제시

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

* 일시 및 장소: '15.6.2(화) 14:00 ~ 15:30,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

* 참석자: 9개 금융지주(신한, NH, 하나, KB, BNK, DGB, JB, 메리츠, 한국투자) 전략담당임원, 금융연구원, 금융위·금감원 담당자 등

금융지주 도입 15주년, 변화와 혁신 필요

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음을 언급하고

- 금융지주제도가 그간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,
-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융지주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

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부터 푼다!

-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의 **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**를 지원할 수 있도록 **시급한 과제부터**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**제도 개선방향**을 제시

① **검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**

▶ **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검직을 대폭 허용**

* 검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검직 확대(예: 신용위험 분석·평가 업무 등)

▶ **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**

* (예) 입금·지급업무 위탁 허용

→ 지주내 two bank인 경우(부산·경남, 전북·광주, 하나·외환 등), 고객에 대해 통합 입금·지급 서비스 가능

② **그룹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화**

▶ **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**

* 현재 문서, 전자우편만 가능하여 문서발송시 年 450억원의 비용(4대 지주측 추산) 및 오발송 우려

③ **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,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**

▶ **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**

* ①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

② 해외법인에 자금지원(대출)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

④ **Fintech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**

▶ **Fintech 등 금융·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 허용**

*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,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 편입 가능

- 오늘 간담회에서는 ①해외진출 및 투자확대, ②그룹내 정보공유, ③기타 영업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 진행
-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6월중 「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」을 발표할 계획
 - 또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·검토하여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

※ 별첨 : 금융위원장 간담회 말씀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